

“우리 아이들 안전, 걱정 없어요!”
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, 학부모 안전체험활동 성료 -
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(원장 정만복)은 지난 5일 김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(회장 정택배) 40여명을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수련시설과 수련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성을 검증 받는 기회를 가졌다.
- 이 날 시설과 프로그램 안전점검에 나선 학교운영위원장들은 청소년들이 실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과정, 생활실 점검, 짚라인 등 모험시설 안전체험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수련원 운영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.
- 캠프에 참가한 한 학교운영위원장은 “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수련 활동에 보내면서 많이 궁금하고 불안했는데 현장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해보니 수준 높은 수련프로그램과 깨끗한 환경, 안전한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.”며 극찬했다.
-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정만복 원장은 “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, 질 높은 수련프로그램 개발·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안전한 수련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- 2002년 개원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
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. 그 동안 대통령
표창, 우수청소년시설,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우수운영기관으로 표창
받은 바 있으며, 「2018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」에서 ‘최우
수’등급을 받은 바 있다.